

서평

케이트 크로스비. 『상좌부 밀교:
동남아시아의 잊혀진 명상전통에 대하여』
[Kate Crosby, *Esoteric Theravada: the story of
the forgotten meditation tradition of
Southeast Asia*, Shambhala, 2020.
(320쪽: ISBN 9781611807943)].

심재관
상지대학교

통상 상좌부 명상전통을 떠올릴 때 우리는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 등지에서 전해진 비빠사나 수행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 수행 전통이 이미 현대적으로 개혁된 상태의 것이며, 20세기 후반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그 현대화된 명상전통보다 더 오래된, 잊혀진 명상전통이 상좌불교 내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이 책은 크로스비(현재 킹스 칼리지 교수)가 캄보디아와 태국의 용어를 사용해 “보란 까맏타나(Borān Kammaṭṭhana “옛 수행법”)¹⁾”라고 부르는 그 잊혀진 상좌불교 명상법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이 명상법은 흔히 상좌부 밀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며, 크로스비

1) 아마도 비조(Bozot)의 영향으로, 연구의 초기에는 이 상좌부의 밀교적 수행법을 요가바짜라(Yogavacara)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보란 까맏타나 혹은 보란 까맏타이라고 부른다. “보란(borān)”은 태국어로 “오래된” 혹은 “전통”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빠리어로 명상법(또는 業處)을 뜻하는 “까맏타나” 결합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오래된 수행법”을 뜻한다.

의 새로운 발견 또한 아니다. 그 이전에 70년대 이후부터 상좌부 밀교의 명상전통을 연구해왔던 프랑스와 비조(Francois Bizot)가 있지만 일군의 유럽 불교학자들 외에는 거의 비조를 알고 있지 못했으며,²⁾ 비조의 작업을 재조명한 이도 또한 크로스비라고 할 수 있다. 그녀를 포함해서 드 베흐농(O. de Bernon), 스킬튼(A. Skilton), 그리고 동남아의 후학들이 이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크로스비는 자신의 박사 논문 이후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줄곧 이 작업에 천착해왔다. 크로스비는 동남아 상좌부 전통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명상전통을 발굴하여 세상에 다시 드러낸 이 분야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크로스비는 1999년 박사논문으로 “스리랑카 중세 빨리 문헌, 밀교적 요가바짜라 전통에 대하여(*Studies in the medieval Pali literature of Sri Lank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soteric Yogavacara tradition*)”를 쓴 후, 다시 2013년 *Traditional Theravada Meditation and Its Modern-Era Suppression* (Hong Kong: Buddha Dharma Centre of Hong Kong)를 통해 보란 깜맛타나의 특징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2013년의 책은 홍콩에서 절판되었으나, 그 이후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일련의 학술대회를 반복한 후, 그 결과를 2020년에 이 책으로 정리해 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앞선 저작을 크게 개선한 개정증보판이라고 할만하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 책 각각의 장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각 장을 독립된 주제의 논문으로 읽을 수 있을 만큼 다소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각각의 장은 보란 깜맛타나라 부르는 상좌부의 밀교 전통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묶여있지만, 실제로 관심있는 장을 따로 떼어서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각 장 마지막에는 간략한 결론마저 제시해놓았다. 굳이 내용별로 구분해보자면,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는 역사적 서술에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특히 1장과 6, 7장은 이 남방의 밀교적 전통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으며, 근현대기에 어떠한 굴곡을 거쳐 위축되어 왔는가를 그리고 있다. 반면, 보란 깜맛타나 수행전통이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2장에서 5장까지 기존 상좌부의 사마타 비빠사나 전통과 비교하면서 다소 구체

2) 그 이유와 비조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번 호의 필자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3장은 수행전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구자료론 정도에 해당한다. 2, 4장 등에서 다루고 있는 명상전통이 어떤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자료들의 활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5장도 보란 껌맛타나에 나타나는 아유르베다나 요가적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함께 교차되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책의 구성이 다소 산만한 형태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실제의 전체 내용상 구성은, 상좌부 밀교의 전근대사, 그 자료의 성립사, 그리고 보란 껌맛타나 수행전통의 실제 등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크로스비는 보란 껌맛타나의 전통을 기존의 판뜨라 전통과 비교하는 대신(이 작업은 2013년 Urkasame가 밝힌 바 있다³⁾), 상좌부 전통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란 껌맛타나가 동남아 불교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이 보란 껌맛타나를 정통 상좌부의 수행법과 독립된 것으로 살피는 동시에 상좌부 수행법의 용어(아비담마의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타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핀다. 이를 위해 크로스비는 상좌부 명상체계의 규범이 된 5세기 붓다고사의 『청정도론(淸淨道論)』을 기준으로 삼아 보란 껌맛타나 명상체계의 위상을 가늠질하고,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 현대적으로 개혁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명상방법들(마하시와 고엔카 두 계열로 대표되는)로 채택되고 있는 비빠사나를 보란 껌맛타나와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8세기경 시암 왕조의 아유타야에서 스리랑카 캔디에 전해진 문헌, 『아마따까라반나나(Amatākaravaṇṇanā)』는 보란 껌맛타나 명상법을 전하는 가장 방대한 문헌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대체로 『청정도론』에서 설하는 40가지 수행주제(行處 “Kammaṭṭhana”)를 언급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수행의 대상과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10종의 까시나(kasiṇa 遍滿相)와 10가지 不淨觀(asubha), 10종의 반복적 마음챙김(anussati),

3) Urkasame, Kitchai. 2013. *A Study of Elements in Yogāvacara Tradition from Tham Scripts Palm-Leaf Manuscripts*, PhD thesis, University of Sydney.

그리고 사무색계(四無色界)와 사범주(四梵住) 등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만 청정도론에는 보이지 않는 『아마따까라반나나』의 특징은, 마치 판뜨리즘의 경우와 같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초선(初禪)의 단계에서 수반되는 삐띠(pīti 희열)를 니밋따와 함께 신체 내부로 전이시키는 것인데, 이 수행자의 신체를 실제 붓다가 내재하는 법신(法身 dhammakaya)으로 상징한다. 수행의 체험을 붓다가 내재하는 자신의 육체로 옮겨오기 위해 보란 깜맛타나 수행전통은 기존의 상좌부 수행전통과 다른 방식의 니밋따(nimitta 표상)를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배꼽 밑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과 주문(“아/라/함 araham”이나 “붓/도buddho” 등)를 반복하는데, 이 때 떠오르는 표상(Nimmit)을 코끝으로 가져가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의 콧구멍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니밋따의 다양한 상태는 스승으로부터 점점을 받지만, 초보자는 대체로 빛의 니미따를 콧구멍으로 이동시켜 단전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 코 끝으로 들어온 니미따를 코 뒤와 머리 위쪽으로, 그리고 다시 머리 위에서 심장을 거쳐 배꼽 밑의 단전까지 내려보낸다. 이러한 표상의 이동과정은 요가나 판뜨라에서 에너지의 중심지와 채널로 말하는 짜끄라와 나디(nāḍī)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단계는 보란 깜맛타나의 전통을 따르는 계보마다 약간씩 다르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수행자의 단전 부위에서 법신이 자라는 ‘자궁’을 상상하며 이 중심으로 계속 니미따를 이동시키는 훈련을 반복하게 된다.

4장에서는 보란 깜맛타나와 빨리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치 판뜨리즘에서 산스끄리트 음절과 범자(梵字) 등을 불신(佛身)의 특정한 부위와 대응시키는 관상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음절이 불법의 어떤 요체를 의미한다는 관점을 보이는 것처럼, 보란 깜맛타나의 전통에서도 빨리어의 특정 음절을 표현하고 있는 각 문자들이 각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빨리어의 음절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라거나 붓다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요소로 수용함으로써, 그 언어 자체가 초월적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실체적 단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빨리어의 음절은 수행의 절차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부적의 수단으로써 빨리어를 이용해 만든 호주(護呪)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흔적이 캄보디아나 태국 승려들이 빨리어를 몸에 새겨 문신을 새기는 현대적 관습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빨리어에 대한 주술적 활용 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위의 숫자들(예를 들어, 나/모/붓/다/야 등의 5음절을 다시 우주의 구성요소 지, 수, 화, 풍, 공 등과 대응시키거나 5Pti(삐띠 “환희”)와 대응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이 수행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보란 까맛타나의 방법이 기존의 상좌부 명상과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특별히 4, 5장에서 묘사한 방법적 특징에서 두드러지는데, 4장이 빨리어의 생성문법이나 음소(音素)와 연관된 수행법을 다루고 있다면 5장은 보란 까맛타나가 가지고 있는 아우르베다와 산파술, 요가, 또는 연금술적인 특징을 서술한다. 빨리어의 자모에 대한 신성한 힘에 대한 만트라적 수용, 연금술의 활용은 보란 까맛타나의 명상 테크닉이 상당히 기존의 만트라 전통 특히 시바파 만트라(Saiva tantra)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신체의 내부로 니밋따의 이동이 익숙해진 수행자들은 몸의 내부 곳곳으로 이 니밋따를 이동시켜 가면서 신체의 상태를 ‘검진’하면서 치료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는 산파술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니밋따를 신체 내부로 전송하는 과정은 수행자의 ‘자궁’ 안에 붓다 또는 아라한을 키워가는 상징적 산파술로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수행과정을 통해 변형시키고자 하는 수행자의 의식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연금술의 표현 또한 마찬가지다. 솥속으로 수은이나 황을 넣어 내부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수은으로 금을 정련하는 방법들의 표현은, 마치 수행자가 반복적인 니밋따 수행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육체를 금과 같은 불멸의 존재 즉 붓다나 아라한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불순물이 있는 철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제련하듯 수행을 통해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상징적으로 표현된 수행들(성관계를 포함해서)이 일부로나마 실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이 책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좌부 전통 내의 밀교적 수행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6세기의 기록인 태국의 핏사눅록(Phitsanulok) 비문에는 불신(佛身)의 신체부위와 아비담마를 연결시키는 보란 깎맛타나의 일부 구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훨씬 이전부터 이 수행법이 유행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방콕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 가운데에는 16세기 보란 깎맛타나 문헌을 인용한 17세기경의 사본이 있는데 아마도 이 전통의 흔적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단서의 하나로 크로스비는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에 있는 휴 네블(Hugh Nevill) 컬렉션을 인용한다. 18세기 중반 아웃타야 왕가에서는 스리랑카로 일군의 승려를 파견하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불교부흥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휴 네블이 수집한 스리랑카의 필사본 가운데에는 상당 부분이 이 당시의 문헌으로 보란 깎맛타나 전승 문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미얀마를 제외하면 캄보디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에서 보란 깎맛타나 문헌들의 흔적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18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에서 이 수행이 유행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정치적인 영향과 근대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수행전통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대중적인 수행전통을 혁파하고자 했던 태국 짜끄리 왕조의 등장이나 유럽의 근대불교 이해가 여기에 한몫했다. 보란 깎맛타나의 전통은 현대에 와서도 거의 주류적인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보란 깎맛타나의 한 계열로 현대 태국에서 담마카야(Dhammakaya) 교단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여전히 이단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리즈 데이비스와 같이 초기 불교 학자들은 이 전통의 존재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낯선 수행방법에 대해 다소 무지했던 탓도 있었다. 아나가리카 달마파다가 스리랑카에서 입수한 보란 깎맛타나 계통의 문헌, 『요가바짜라 講說(The Yogāvacara's Manual)』을 리즈 데이비스가 입수해 1986년에 출판했지만, 이 문헌의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즈 데이비스가 출판한 이 명상수행서는 최초로 유럽에서 출판된 불교 명상수행 문헌이다. 동남아의 자생적인 문헌을 배제한 채로,

빨리 삼장을 통해서만 불교를 재구성했던 초기 불교연구자들의 편향도 있었으며, 16세기경 스리랑카 등지의 정치적인 분규로 인해 명상전통이 거의 소멸했을 것이라는 역사적 편견도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최근까지 현지에서도 지속되는데, 현대에 상좌불교의 명상을 되살리고자 했던 승려들이 명상법을 개혁하면서 보란 깎맛타나를 정통수행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인찍어 버린 이유도 있다.

근대의 서구 의학의 유입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보란 깎맛타나가 가지고 있는 약물과 연금술의 상징적 테크닉은 타락한 불교의 저열한 마술 정도로 취급되었으며, 의례와 부적과 같은 요소는 근대적인 불교 개혁 승려들 사이에서도 금지되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법신(法身 dhammakaya)의 잉태와 양육 같은 독특한 수행법도 비전통적 수행법으로 간주했다. 매우 최근까지도 학자들은 이 전통이 티벳 밀교의 영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수행 전통의 근원적인 뿌리와 발전에 대한 연구는 진행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동남아 불교지역의 자생적인 문헌들의 편집과 수집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크로스비의 이 책은 보란 깎맛타란의 명상전통에 대한 원전적 이해나 기존 명상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글이 아니라, 차라리 동남아시아 테라바다 명상의 다양한 차원들이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적 기술이 훨씬 돋보이는 글이다. 이 책의 내용이 다소 패치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매우 쉽게 쓰인 글이기 때문에 불교입문자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동남아시아 불교의 현대적 양상을 연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테라바다 명상전통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할만한 책이라 생각된다.